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채 규 만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학생 성 피해자들의  
용서와 정신건강과의 관계

2008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김 현 아

대학생 성 피해자들의  
용서와 정신건강과의 관계

채 규 만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김 현 아

# 인 준 서

김현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 개요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 피해의 특성을 살펴보고, 성 피해를 경험한 집단을 대상으로 성 피해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용서가 성 피해 후유증으로서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OCU를 통해 ‘성행동의 심리학’ 인터넷 강의를 듣는 전국 약 14개 대학(강릉대, 공주대, 동덕여대, 부경대, 부산외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순천향대, 용인대, 인제대, 인하대, 제주대, 중앙대, 충북대)의 학생 463명이었으며, 성 피해에 관한 척도를 이용하여 성 피해 경험자와 비 피해자를 구분하였다. 그 결과, 원치 않는 성경험이 있다고 보고한 대상자는 전체 463명 중 97명으로 21.0%를 차지하였다. 여자의 경우 전체 233명 중 77명(33.0%)이 원치 않는 성 피해를 경험했다고 보고한 반면, 남자는 전체 230명 중 20명(8.7%)이 원치 않는 성 피해를 경험했다고 보고했다.

수집된 자료는 SPSS1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을 알아보고자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에 따른 성 피해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성 피해 경험 유무와 그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고 성 피해 경험의 특성에 따른 용서 정도에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 피해를 경험한 집단을 대상으로 용서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 피해를 경험하였다고 답변한 대상자는 97명으로 전체의 21%를 차지하였으며 이 중 남자는 97명 중 20명으로 8.7%가 원치 않는 성 피해를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고 여자는 97명 중 77명으로 33.0%가 성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 피해 경험 유형에 대해 여성의 경우 전반적으로 성 피해의 위험에 남성에 비해 많이 노출되어 있지만 비교적 경미한 정도의 성 피해를 더 자주 경험하는 반면 남성의 경우는 성 피해를 경험하는 빈도가 여성에 비해 적지만, 그 정도는 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성 피해를 처음 경험한 나이를 살펴본 결과 남녀 모두 청소년기와 성인기에서의 피해비율이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청소년기에서의 피해가 과반수 이상을 넘어, 청소년기에 성 피해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가해자와의 관계에 대한 문항 중 여성의 경우 이성친구라는 답변이 가장 많아 데이트 성폭력의 심각성을 반영하였다. 남성의 경우는 선배로부터의 피해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대부분은 군대에서 선임으로부터 성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하였다.

둘째, 성 피해 경험 유무와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피해 집단이 비 피해 집단에 비해 정신건강이 유의미하게 해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 미루어 보아 성 피해로 인한 심리적인 후유증

이 피해자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대인관계와 대학생활 적응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어 성 피해 후유증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이 부각된다.

성 피해 집단에서 성 피해의 특성에 따른 용서 정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성이 여성에 비해 유의하게 용서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향성은 남성 중심의 성문화에서 여성보다는 남성 성 피해자들이 자신이 피해자라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직면하기 어려워하여 심리적인 고통을 부정한 결과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성 피해 집단을 대상으로 용서의 정도에 따른 정신건강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용서를 더 많이 할수록 적게 한 피해자에 비해 정신건강의 하위측면 중 대인예민성, 적대감, 정신증에서 유의미하게 정신건강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용서를 함으로 인해 대인관계에서의 불편감과 부적절감을 덜 느끼게 되며, 가해자에 대한 분노를 포함한 전반적인 관계에서의 공격성, 사회적인 고립, 철수와 같은 정신병적인 증상을 적게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 목 차

## 논문 개요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문제 ..... 4

### II. 이론적 배경 ..... 5

1. 성 피해의 개념 및 정의 ..... 5
2. 성 피해의 실태 및 현황 ..... 6
3. 성 피해의 후유증에 관한 연구 ..... 7
  - 1)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후유증 ..... 7
  - 2) 성 피해 경험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 9
4. 용서 ..... 10
  - 1) 용서의 의미 ..... 10
  - 2) 용서의 특징 ..... 11
  - 3) 용서의 과정 ..... 13
  - 4) 용서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 ..... 14

### III. 연구방법 ..... 16

1. 연구대상 ..... 16
2. 측정도구 ..... 16
  - 1) 성의식 및 성활동 질문지 ..... 16
  - 2) Enright 용서 질문지 ..... 17
  - 3) 간이정신진단검사 ..... 18

3. 연구절차 .....	19
4. 분석방법 .....	19
<b>IV. 연구결과</b> .....	<b>21</b>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21
2. 성 피해 경험의 특성 비교 .....	23
1) 성 피해 경험 여부 .....	23
2) 성 피해 경험 유형 .....	24
3) 성 피해를 경험한 시기 .....	25
4)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	26
3. 성 피해 경험과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 차이 비교 .....	27
1) 성 피해 집단과 비피해 집단간의 정신건강 차이 분석 .....	27
2) 성 피해 집단에서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 차이 분석 .....	28
3) 성 피해 집단에서 성 피해 유형에 따른 정신건강 차이 분석 .....	29
4) 성 피해 집단에서 성 피해 시기에 따른 정신건강 차이 분석 .....	30
5) 성 피해 집단에서 가해자와의 관계에 따른 정신건강 차이 분석 .....	30
4. 성 피해 집단에서 성 피해의 특성에 따른 용서 정도의 차이 .....	31
1) 성 피해 집단에서 성별에 따른 용서 정도의 차이 분석 .....	31
2) 성 피해 집단에서 성 피해 유형에 따른 용서 정도의 차이 분석 .....	32
3) 성 피해 집단에서 성 피해 시기에 따른 용서 정도의 차이 분석 .....	33
4) 성 피해 집단에서 가해자와의 관계에 따른 용서 정도의 차이 분석 .....	33
5. 성 피해 집단에서 용서와 정신건강과의 관계 .....	34
<b>V. 논의 및 제언</b> .....	<b>36</b>
1. 결과 논의 .....	36
2. 연구의 제한점 및 의의 .....	39

참 고 문 헌

ABSTRACT

부 록

## 표 목 차

표 1 전체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22
표 2 성 피해 경험의 남녀 비율 .....	23
표 3 성 피해 경험 유형의 남녀 비율 .....	24
표 4 성 피해를 경험한 시기의 남녀 비율 .....	26
표 5 가해자와의 관계에 대한 남녀 비율 .....	27
표 6 성 피해 집단과 비 피해 집단의 정신건강 차이 분석 .....	28
표 7 성 피해 집단에서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의 차이 검증 .....	28
표 8 성 피해 경험 집단의 성 피해 유형에 따른 정신건강의 차이 검증 .....	29
표 9 성 피해 경험 집단의 성 피해 시기에 따른 정신건강의 차이 검증 .....	30
표 10 성 피해 경험 집단의 가해자와의 관계에 따른 정신건강의 차이 검증 .....	31
표 11 성 피해 집단에서 성별에 따른 용서 정도의 차이 검증 .....	32
표 12 성 피해 경험 집단의 성 피해 유형에 따른 용서 정도의 차이 검증 .....	32

표 13 성 피해 경험 집단의 성 피해 시기에 따른 용서정도의 차이 검증 .....	33
표 14 성 피해 경험 집단의 가해자와의 관계에 따른 용서정도의 차이 검증 .....	34
표 15 성 피해 집단에서 용서와 정신건강과의 상관관계 .....	35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우리 사회의 성폭력 문제는 매스컴에서 연일 접할 수 있을 정도로 만연되어있고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문제가 대두된 것은 불과 20여년에 지나지 않으나, 여성에 대한 성폭력 범죄율은 세계 2위를 기록할 정도로 심각하다(한국여성상담센터, 2004). 해가 갈수록 늘어가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여성의 전화, 성폭력 상담소 등 사회적인 서비스 지원체계가 갖춰지고 있으며, 성폭력 생존자의 치료와 재활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서울 시내 거주하는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원치 않는 성경험에 대해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성 피해 후 정신적 상처가 남았다고 보고하는 비율이 50%에 다다르고 있어 성 피해에 따른 정신적 손상의 심각성을 추정해볼 수 있다(박성민, 1999). 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도 성 피해를 피해자 개인의 부주의와 순결과 관련된 성문제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신고 수가 2.2%에 지나지 않고 있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7)는 점을 고려해볼 때, 피해사실을 은폐하고 있는 피해자들까지 미루어 생각하면 그 심각성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성 피해의 후유증은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차원에서 관찰할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심리적 후유증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정규, 김종술, 2000). 대부분의 성폭력 피해자들은 피해 정도와 지속 정도, 가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개 두려움과 불안 증세를 먼저 호소한다(한국성폭력상담소, 1993). 또한 자기 몸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순결을 잃은 것에 대한 상실감, 우울감 등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며, 공황장애, 우울증, 수면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대인관계 회피, 알코올이나 약물 남용, 성기능 장애 등의 다양한 심리적 후유증을 나타낸다(김정규, 김종술, 2000; 권희경, 장재홍, 2003; 안옥희, 2000; 박성민, 1999).

최근 대인관계의 부정적 경험과 상처를 극복하고 건강한 자아와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기제로서 용서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Enright & Fitzgibbons, 2000; 김광수, 1999; 오영희, 2004). 이들 연구에 의하면 용서는 개인내적 측면에서는 적극적인 자기치유, 자기회복의 방법으로 상처를 회복시키고 부정적 내적 상황을 극복하도록 기능하며, 대인관계 측면에서는 상처와 갈등으로 인한 복수의 악순환을 멈추게 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준다는 심리치료적인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가해자를 용서한다는 개념이 낯설고 피해자들에게 가해행위를 망각하거나 상처를 부인하는 것과 같은 인상을 줘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용서는 오히려 가해행위가 부당함을 인정하고 누구도 자신에게 상처를 줄 권리가 없으며, 피해에 대한 분노가 정당함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서구에서는 많은 연구들이 성 피해를 포함한 많은 피해상황에 용서치료 과정을 도입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 특히 근친 간 성 피해를 경험한 12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용서집단 프로그램

램을 실시한 결과, 근친 간 성 피해자 집단을 위한 어떤 치료프로그램보다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는 Freedman의 연구(Freedman, 1994)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료에서 용서 활용의 긍정적인 가능성을 보여준다.

서양에서는 성폭력 피해 상담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공공기관이나 사설 상담소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Robert, Louis, & Debra, 1986). 우리나라에서는 각 기관에 따라 교육내용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등의 문제점이 있고 급변하는 상담환경에 적응하여 새로운 상담이론이나 기법 등을 통한 성폭력 상담의 전문성 제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박옥임, 2004). 하지만 현재 이루어진 연구는 성폭력 피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집단 상담이나 예술치료가 대부분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성폭력 상담에서 용서를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성 피해 경험을 알아보고, 가해자를 용서하는 것과 정신건강이 어떤 관련이 있는 지 검증하고자 한다.

## 2. 연구문제

1.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고 성 피해의 실태와 특성을 살펴본다.
2. 성 피해를 경험한 집단과 경험하지 않은 비 피해 집단의 정신건강이 차이를 나타내는지 알아본다.
3. 성 피해 집단에서 성 피해의 특성에 따른 용서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다.
4. 성 피해 집단에서 용서의 수준에 따른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살펴본다.

## II. 이론적 배경

### 1. 성 피해의 개념 및 정의

성폭력의 개념은 개인의 성에 대한 가치관이나 폭력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에 따라 달라지고 또한 문화마다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성 피해의 정의는 연구들마다 매우 다양하다.

현재 흔히 사용하고 있는 성폭력(sexual violece 또는 sexual assault)이란 용어는 우리 사회에 도입 된지 얼마 되지 않은 개념으로,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사용한 강간이라는 개념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성적인 욕구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성기삽입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강간이 성에 의한 폭력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여성운동가들에 의해 성폭력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법적인 용어로 공식화되었다(조주현, 1997)

일반적으로 성폭력의 광범위한 범위에는 성희롱, 성적 추행, 성기노출, 강간미수, 강간, 윤간, 강도강간, 성적 가혹행위, 음란물 보이기, 음란물 제작에 이용, 윤락행위 강요, 음란 전화, 아내구타, 인신매매 등 모든 신체에 가해지는 물리적 폭력과 음란한 말이나 눈짓, 정신적인 학대 등이 포함된다. 즉 성폭력이란 성을 매개로 인간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으로 정의될 수 있다.

현행 성폭력 특별법에 따르면 성폭력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거나 성적행위를 하도록 강요·위압한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른 연구들에서 성학대, 성폭력 등으로 언급된 용어를 포괄적으로 성 피해로서 사용할 것이며, 성 피해의 의미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행위를 하거나 성적행위를 하도록 강요·위압한 행위로 정의 내렸다.

## 2. 성 피해 실태 및 현황

Kelly(1988)에 의하면 대부분의 여성이 생애동안 한 번 이상의 성폭력을 경험하며, 또한 여러 번 경험할 가능성이 보다 높은 성폭력의 형태가 있다고 한다. Kelly(1988)는 60명의 여성을 면접한 결과 많은 여성들이 여성 자신과 남성 또는 법이 강간으로 규정짓지 않는 심각한 수준이 아닌 가벼운 수준의 성 피해 경험이 한 번 이상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성폭력 발생빈도와 그 피해에 대한 연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1989년 실시된 심영희의 서울에 거주하는 2,27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전체 응답자 중 가벼운 추행 76.4%, 성기노출 74.5%, 성적희롱 48.6%, 음란전화 46.3%, 심한 추행 23.7%, 강간 미수 14.1%, 강간 7.7%, 어린이 성추행 6.5%의 순서로 나타나 성적 피해 문제가 특정 집단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대다수가 공유하는 일반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심영희, 1989). 가해자는 대부분이 아는 사람이었고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보면 가벼운 추행 등의 비교적 경미한 성폭행을 경험한 여성들은 주로 자신의 일이나 공부에 지장을 받았을 뿐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심한 추행이나 특히 강간과 강간 미수를 당한 여성들은 정신적 피해를 많이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경희, 1996).

최근 조사에서는 성폭력의 피해자는 여자만이 아니라 적은 비율이지만 남자가 일정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청주지역의 한 성폭력 상담소가 1996년 6월부터 3년간 실시한 577건의 상담 가운데 남자가 피해자인 경우가 6.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군대 내 10명 중 1명은 군대생활 중 성희롱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군대에서 성폭력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현역 장병들의 성범죄 건수는 강간 244건, 동성 간 추행 133건을 포함해 총 6백66건에 달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남성이 피해자라는 사실이 가질 수 있는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피해 건수가 공개되는 경우가 매우 적을 것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율은 조사된 것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이석재, 2001, 송진경, 2003, 재인용).

### 3. 성 피해의 후유증에 관한 연구

#### 1)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후유증

한국성폭력 상담소의 보고(1993)는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은 폭력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음을 제시해준다.

피해자들은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정서적(낮은 자아존중감, 고립감, 대인기피증 등), 신체적(치녀막 손상, 식욕감퇴, 두통, 하혈 등), 정신적(불안, 공포, 신경쇠약 등) 및 사회적(학업중단, 음주, 흡연 등)문제와 그 후유증이 매우 심각하다(Gordon, 1986; 박성숙, 1990; 박혜영, 1996).

성 피해가 미치는 심리적 후유증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보고하는데, 단기적 후유증은 두려움, 불안감, 우울감(Anderson, Bach, & Griffith, 1981), 분노, 적대감, 부적절한 성적 행동(Tuft's New England Medical Center, 1984) 등이 있고, 장기적 후유증으로는 만성적 우울감, 자기파괴적 행동, 고립감, 낮은 자아존중감, 물질 남용, 타인 불신(Finkelhor & Brown, 1985), 성적 역기능(Courtois, 1979) 등으로 볼 수 있다.

성 피해를 당한 대학생이나 직장여성에게 나타나는 심리적 후유증으로 자신감과 자존심이 저하되고, 우울증이 나타나며, 불안이 심해진다는 보고도 있다(정의남, 2002).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순결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어 성 피해 여성들은 자신의 몸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자신에게 다른 사람들과 달리 결함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심한 우울감을 느끼게 된다(채규만, 1999). 동시에 성 피해자들은 상당한 죄책감과 수치심을 경험하게 되고, 가장 치명적인 피해 중의 하나로 자신에 대한 낮은 자기개념을 형성하게 된다. 피해자들은 항상 자신은 사랑 받을만한 가치가 없고, 자신이 남들과 다르며 본질적으로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Finkelhor & Brown, 1985).

성 피해가 미치는 신체적인 후유증에는 신체적 상해는 물론, 임신, 낙태, 출산 등의 위험이 있다. 또한 여성의 경우에는 결혼 이후의 부부간 성행위를 기피하며, 불감증, 불임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남성의 경우는 조루증 또는 발기불능을 호소하기도 한다. 많은 피해자들은 피해 당시의 감정을 직면하는 것이 두렵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자신의 고통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서 신체를 사용한다. 흔히 호소하는 증상들은 만성두통, 복통, 방광염, 경련, 골반이나 질의 통증 등이다. 이러한 심인성 통증 이외에도 성 피해를 경험한 피해자들의 약 30%는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보이며, 섭식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김정규,1996).

성 피해가 미치는 사회적인 후유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인관계에 대한 영역이다. 성 피해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두려워하여 사람들을 회피하거나, 아니면 다수의 사람들과 피상적인 관계를 갖는 경우가 많다. 깊은 관계는 결국 자신을 이용하고 배신하여 상처를 주는 관계로 생각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타인을 깊이 사귀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김정규,1996).

## 2) 성 피해 경험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성 피해는 피해자에게 외상적인 경험으로 신체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 심한 손상을 입힌다. 이런 성 피해에 의한 정신적인 후유증의 심각성은 외국 논문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연구에서도 밝혀지고 있다.

성 피해가 미치는 정신건강의 부정적인 피해는 심각하고 오래 지속되며,

자살시도자, 약물중독자, 정신과환자 집단에서는 성 피해 경험에 대하여 33%에서 81%까지 경험한 것으로 보고 되었다(Jacobson & Rochardson, 1987; 송진경, 2003, 재인용)

성 피해자들이 나타내는 임상적 특징으로는 주요우울증, 적대감, 대인관계에서의 민감성, 편집증, 불안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다중인격장애, 경계선성격장애, 알콜중독, 섭식장애, 신체화장애, 성적 역기능, 자살시도, 두려움, 분노감, 낮은 자아존중감, 성에 대한 부정적 태도, 사회적 기능에서의 장애 등이 있다(Briere & Conte, 1989).

## 4. 용서

### 1) 용서의 의미

용서는 그 개념 속에 내재되어 있는 종교적, 철학적 특성으로 인해 심리학에서 주목을 받지 못해왔지만 최근에 들어 용서의 잠재적 특성에 대한 연구와 적용이 심리학자와 교육 심리학자들에 의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인간의 심리적 적응과 성장 및 발달 등 여러 심리학적 관점에서 논의 되어온 용서에 대한 이해는 최근 통합적 관점에서 용서를 정의해온 Enright와 그의 동료들의 작업에서 체계화 되고 있다. Enright와 그의 동료들은 기존의 종교, 철학문헌에 대한 분석과 철학자 North의 개념에 토대하여 용서를 정의했다. Enright와 그의 동료들에 의하면 용서란 피해를 준 사

람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과 판단을 극복하는 것으로 이러한 판단과 감정을 가질 권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그럴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자비, 동정, 심지어 사랑으로 대하려고 노력하는 인지, 정서, 행동적 반응의 복합체라고 정의 내렸다.

## 2) 용서의 특징

첫째, 용서는 사람과 사람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비인격체나 다른 생명체로 인한 상처, 천재지변이나 질병, 짐승 등에게 상처를 입었을 경우에는 용서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노승수, 1999; Lin, 2001; Smedes, 1984; 장화수, 2002; 김수영, 2004, 재인용)

또한 용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당하고 깊은 상처를 입었을 때 일어나는 행위이다. 부당하다는 것은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어긋나는 것을 말한다. 부당하고 심각한 상처는 쉽게 잊지 어렵고 견뎌내는 것도 어려워져 대인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이를 근본적으로 치료하고 다시 결합할 가능성을 제공해 주는 기회로서 용서가 필요하다(오영희, 1995).

셋째, 용서는 정의와 분노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어쩔 수 없이 부정하는 나약하고 수동적인 해결방법이 아닌, 적극적인 자기 치유와 회복의 방법이다. Trainer(1981)는 여러 가지 종류의 용서에 대해 언급하면서 진정한 용서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기를 존중하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심리적인 힘이 있다고 주장했다(오영희, 1995; 김수영, 2004, 재인용).

넷째, 진정한 용서는 무조건적으로 일어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약 가해자가 변화하고 용서를 구해온다는 조건이 있다면 기꺼이 용서를 할 것이다. 하지만 모든 가해자가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가해자의 사죄나 변화 여부에 관계없이 용서를 하는 것만으로도 용서하는 사람은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정신건강에 좋은 영향을 받는다. 혹시라도 용서를 하게 되면 과거의 상처 받았던 경험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경험을 되풀이 하게 될까 두려워한다. 하지만 가해자를 용서하면 파괴적인 관계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기도 하고 가해자에 대한 분노를 내면화 하지 않고 대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게 되기도 한다. 즉, 조건 없이 자신을 위해서 용서를 할 때 진정한 용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다섯째,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아니다. 용서를 위해서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며 모든 것을 상황 탓으로만 돌리고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용서가 아니다(송봉모, 2001; 장화수, 2002; 재인용)

여섯째, 용서는 힘겨운 작업이다. 진정한 용서는 죄책감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우리가 현재에서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과거를 놓아버리도록 도와준다.

마지막으로, 용서는 시간이 걸리는 길고 어려운 과정이 될 수 있다. 용서는 일시적인 행위가 아니라 과정이기 때문이다. 용서한다는 말을 한다고 가해자에 대한 분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과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으며 용서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또한 필요하다(Enright, 1984).

이경순(2000)은 용서개념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해서 용서개념의 속성으로 자발성(voluntariness), 서로가 용서할 때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진다는 호혜성(reciprocity), 용서는 상처가 아프다고 느끼면서부터 시작된다는 점(hurt), 용서를 통해 상처가 치유된다는 점(healing), 용서는 인간의 힘으로만은 불가능하다는 점(working of divine power),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elapse of time)을 들었다.

### 3) 용서의 과정

Enright와 그의 동료들이 제시한 용서의 과정은 개인이 용서를 할 때 일반적으로 거치게 되는 경로로 엄격한 일련의 단계라기보다는 개인에 따라 변화 가능한 것으로 사람마다 다른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용서의 과정은 기본적으로 네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정적인 심리경험 및 자각을 하게 되는 '노출 단계', 문제해결의 필요성 및 해결전략의 선택과 함께 용서를 결정하게 되는 '결정 단계', 용서의 전략을 실행하는 '작업 단계', 마지막 마무리인 '결과 단계'이다. 용서의 네 단계를 거치기 전에 먼저, 가해자인 구체적인 대상을 찾아내고 그 상처에 대해서 인식하고 직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첫 단계인 상처에 대한 노출 단계에서는 초기에 문제에 대한 부인(denial)이 일어날 수 있지만 점차적으로 방어가 무너지면서 부정적인 정서, 인지, 행동이 드러나게 된다. 또한 피해자가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경험하기도 한다.

결정 단계에서는 피해자 스스로가 가해자와 그로 인한 상처에 집착하는 것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자각을 하고 용서에 대한 개념을 수용하고 가해자를 용서하기로 결정한다.

작업 단계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재구조화가 이루어져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전가하지 않으려는 결심과 함께 가해자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할 수 있게 된다.

결과 단계에 이르면 피해자는 고통을 겪고 용서하는 과정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자신 역시 다른 사람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며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또 가해자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과 생각이 증가된 것을 인식하면서 내적, 정서적 해방감을 느끼게 된다.

#### 4) 용서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

용서의 정서적 효과에 관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 밝혀진 용서와 관련된 변인들은 다음과 같다. 부정적 정서로서 우울, 불안, 분노, 슬픔 등을 감소시키는 것과 긍정적 정서로서 자존감, 자아효능감, 희망 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Hebl & Enright, 1993; Coyle & Enright, 1997; 김광수, 1999, 재인용).

특히 최근에는 용서가 분노를 없애기 위한 인지적 또는 정서적 전략으로 제안되어 적용되고 있다. Fizzgibbons(1986) 등은 용서에 의해 분노가 효과적으로 다루어지고 치유될 때 수년에서 심지어 수 십 년 후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대치되어 나타나는 분노의 부정적 전이가 단절되고, 관계의 회복

을 가져올 수 있으며 분노로 인해 나타나는 우울, 죄의식, 기타 여러 가지 신체적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캐나다의 정신과 의사인 R. C. Hunter는 다양한 심리적인 증후들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용서를 통해서 치유를 경험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불안한 사람들이 용서를 통해서 불안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우울증과 극심한 분노를 갖고 있는 사람 혹은 편집증적인 사람들도 용서한 후에 증상이 감소되는 것을 관찰했다. 또, 펜실베이니아의 정신과 의사인 Ricahrd Fitzgibbons 는 용서를 할 때 두려움이 감소하는 것을 관찰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무의식적으로 공격적인 충동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는데, 용서를 할 때 사람들이 보다 적절한 방식으로 화를 표현하면서 이러한 죄책감도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두려움 또한 감소하게 되는 것을 발견했다. Suzanne Freedman과 Robert. D. Enright가 24세에서 54세까지의 근친 간 성 피해자 12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1년 이상 용서 집단상담을 한 결과, 참가자들이 전반적으로 우울감과 불안, 무력감이 감소되었다.

여성의 순결과 정조를 중요시하는 우리나라의 문화와 성폭력 피해자에게 그 책임의 많은 부분을 전가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피해 여성들의 상처와 충격을 배가하고 있다. 앞서 성 피해 후유증 영역에서도 기술했듯이 성 피해 여성들은 성폭력 피해 경험으로 인해 인지적 문제(자기비난, 부정적 자기개념), 정서적 문제(분노감, 무력감, 수치심), 그리고 행동적 문제(남성기피, 역기능적 성행동)들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 따라서 상담과정은 성 피해자들의 인지, 정서, 행동, 사고들을 모두 통합적으로 다루어주어야 한다(권희

경, 2004).

용서는 인지, 정서, 행동을 포괄하는 과정으로서 우울, 불안, 분노의 감소와 자존감, 자아효능감의 향상에 효과가 있으므로 성 피해로 인한 후유증을 치료하는데 적합하다고 예상되어진다(Hebl & Enright, 1993; Coyle & Enright, 1997; 김광수, 1999, 재인용).

### Ⅲ.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성행동의 심리학’ 수업을 듣는 전국 약 14개 대학(강릉대, 공주대, 동덕여대, 부경대, 부산외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순천향대, 용인대, 인제대, 인하대, 제주대, 중앙대, 충북대)의 학생 463명

#### 2. 측정 도구

##### 1) 성의식 및 성활동 질문지

성신여대 심리건강 연구소에서 제작한 성의식 및 성활동 질문지(1998)는 성의식 질문 35문항, 원치 않는 성경험에 관한 15문항과 가장 상처가 된 피해경험을 중심으로 피해의 특성(피해 시기, 가해자의 특성, 가해자와의 관계, 대처방식 등)에 관한 15개 문항, 성장배경(부모님과의 관계, 가족배경, 경제적 수준 등)문항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치 않는 성경험에 관한 15문항, 각각의 피해경험을 중심으로 피해의 특성(피해 시기, 가해자와의 관계, 피해빈도 등)에 관한 5문항을 사용하였다.

## 2) Enright 용서 질문지

용서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Enright의 Forgiveness Inventory(EFI)를 김광수(1999)가 번안하여 사용한 66문항으로 이루어진 질문지이다. 척도에 응답하기에 앞서 상처를 준 대상, 내용, 정도를 표기하게 하는 8문항이 있고, 가해자에게 갖는 감정을 묻는 20문항(1번~20번), 행동을 묻는 문항(21번~40번), 생각을 묻는 문항(41번~60번)이 점수에 합산되며 피해상황에 대한 고통을 부인하거나 가해자 행동을 묵과하는 거짓용서 정도를 묻는 5문항(61번~65번)이 첨가되어 있다. 또한 최종 질문으로 용서질문의 타당성을 묻는 1개 문항(66번)이 있는데 1번부터 66번까지의 모든 문항은 4점 리커트 방식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그렇지 않다’를 2점, ‘그렇다’를 3점, ‘매우 그렇다’를 4점으로 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하위영역별 용서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김광수(1999)의 연구에서 나타난 검사의 내적 일치

도 수준은  $\alpha=.97$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alpha=.98$ 이었다.

### 3) 간이정신진단검사

미국 임상 심리학자인 Derogatis(1977)이 제작한 90문항의 Symptom Check List-90-Revision(SCL-90-R)를 김광일, 김재환 및 원호택(1984)이 우리나라에 맞게 제작한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R)를 이훈구(1986)가 다시 1986년도 Y 대학 신입생 전체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후 요인 분석하여 제작한 축소판(47문항)을 사용하였다(김범준, 1988).

간이정신진단검사는 관찰자가 공유할 수 없는 피관찰자의 주관적인 경험을 제공해 주고 전문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가려내 주는 일차적인 도구로 사용될 수 있으며 검사의 실시 및 평가가 비전문가에 의해 가능하므로 집단 심리검사나 임상적인 측면에서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성인을 측정대상으로 한다.

채점방법은 ‘오늘은 포함하여 지난 7일 동안 경험한 증상의 정도’를 각 문항별로 ‘전혀 없다’ 0점에서 ‘아주 심하다’ 4점으로 하며 전체 5점의 리커트 척도이다. 하위척도로는 신체화, 강박증, 대인예민성, 우울증, 불안증, 적대감, 공포불안, 편집증, 정신증 등의 9가지 증상차원을 측정하게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증상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축소판 간이정신진단검사를 사용한 김범준(1988)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9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6이었다.

### 3. 연구 절차

OCU를 통해 '성행동의 심리학' 수업을 듣는 전국 약 14개 대학(강릉대, 공주대, 동덕여대, 부경대, 부산외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순천향대, 용인대, 인제대, 인하대, 제주대, 중앙대, 충북대)학생들 595명에게 수업 중 과제로 내주어 10월 15일 까지 수집하였다. 설문지와 응답지를 과제 게시판에 첨부파일로 게시해서 학생들이 다운을 받아 답안을 작성하도록 하고, 과제 제출란에 제출한 과제만 수거하였다. 질문지의 첫 장에는 이 연구의 목적과 유의사항, 개인의 비밀보장에 관한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였으며, 질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약 20~30분이다.

### 4. 분석 방법

1.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SPSS 1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 각 척도별 신뢰도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신뢰도 분석(Cronbach  $\alpha$ )을 실시하였다.
3.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분포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카이 자승 검정을 실시하였다.
4. 성 피해 경험 유무와 그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5. 성 피해 경험의 특성에 따른 용서 정도에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6. 마지막으로 성 피해를 경험한 집단을 대상으로 용서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OCU를 통해 ‘성행동의 심리학’ 인터넷 강의를 듣는 전국 약 14개 대학 (강릉대, 공주대, 동덕여대, 부경대, 부산외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순천향대, 용인대, 인제대, 인하대, 제주대, 중앙대, 충북대)의 학생 5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회수된 595부 중에서 분석에 필요한 문항에 응답하지 않았거나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많은 등 불성실한 것을 제외하고 총 463부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연구주제의 특성상 연구대상자들이 자신의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익명성의 보장을 위해 인구통계학적 질문은 성별과 나이, 혼인여부만을 사용하였다.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기에 직업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연구대상자들의 성별은 남자가 230명(49.7%), 여자가 233명(50.3%)로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유사하게 표집 되었다.

연구대상자들의 연령은 만 나이로 측정하였으며 10대는 20명(4.3%), 20대는 427명(92.2%), 30대 이상은 16명(3.5%)로, 대학에서 성행동의 심리학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2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여부를 살펴보면 미혼이 450명(97.2%)으로 대부분이었으며, 동거는 2명(0.4%), 기혼이 10명(2.2%), 기타는 1명(0.2%)으로 나타났다.

<표 1> 전체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463)

특성	구분	명수	빈도(%)
성별	남	230	49.7
	여	233	50.3
연령	10대	20	4.3
	20대	427	92.2
	30대 이상	16	3.5
혼인여부	미혼	450	97.2
	동거	2	0.4
	기혼	10	2.2
	기타	1	0.2

## 2. 성 피해 경험의 특성 비교

### 1) 성 피해 경험 여부

연구 대상자들의 성별에 따라 성 피해 경험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성 피해 경험 유무에 대한 분류는 설문지에 제시된 '원치 않는 성경험'에 대한 8개의 문항 중 하나라도 예라고 대답한 경우 성 피해 경험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로 원치 않는 성경험이 있다고 보고한 대상자는 전체 463명 중 97명으로 21.0%를 차지하였다. 성별에 따라 비율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chi^2=41.444$ ,  $p<.001$ ). 여자의 경우 전체 233명 중 77명(33.0%)이 원치 않는 성 피해를 경험했다고 보고한 반면, 남자는 전체 230명 중 20명(8.7%)이 원치 않는 성 피해를 경험했다고 보고했다.

<표2> 성 피해 경험의 남녀 비율 (N=463)

	남자N(%)	여자N(%)	전체N(%)
피해	20 (8.7)	77 (33.0)	97 (21.0)
비피해	210 (91.3)	156 (67.0)	366 (79.0)
전체	230 (100)	233 (100)	463 (100)

$\chi^2=41.444$ ,  $p<.001$

## 2) 성 피해 경험 유형

성 피해 경험 유형에서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원치 않은 성 피해를 경험한 모든 문항에 중복 응답 하도록 하였다. 여성의 경우 이성이 '포옹이나 키스를 시도하려고 했다'는 보고가 가장 많았으며(27.9%) '자신의 가슴이나 성기를 만졌다'는 보고가 19.4%로 두 번째로 많았다. 남성의 경우 이성이 '자신의 가슴이나 성기를 만졌다'는 보고가 24.3%로 가장 많았고 '포옹이나 키스를 시도하려고 한 것'과 '이성의 성기를 만지도록 강요 받은 것'이 그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15.7%) 나타났다. 또, 남성의 경우 강압에 의해 성관계를 가졌다는 보고가 여성보다 많은 11.4%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경우 비교적 경미한 정도의 성 피해의 유형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남성의 경우 성 피해를 경험하는 빈도가 여성에 비해 적지만, 그 정도는 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성 피해 유형에서의 남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chi^2=9.954$ ,  $p=.19$ ).

<표3> 성 피해 경험 유형의 남녀 비율 (N=97)

	남N(%)	여N(%)	전체N(%)
포옹이나 키스를 시도	11(15.7)	62(27.9)	73(25.0)
가슴이나 성기를 만짐	17(24.3)	43(19.4)	60(20.5)
이성의 성기를 만지도록 강요	11(15.7)	27(12.2)	38(13.0)

질이나 항문에 손가락을 넣으려 함	4(5.7)	28(12.6)	32(11.0)
질이나 항문에 성기를 넣으려고 함	7(10.0)	22(9.9)	29(9.9)
질이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함	6(8.6)	15(6.8)	21(7.2)
이성의 성기를 입에 넣도록 강요	6(8.6)	10(4.5)	16(5.5)
강압에 의해 성관계를 가짐	8(11.4)	15(6.8)	23(7.9)
전체	70(100)	222(100)	292(100)

$\chi^2=9.954, p=.19$

### 3) 성 피해를 경험한 시기

경험한 성 피해 중 가장 정신적으로 오랜 상처가 된 문항을 중심으로 그 피해가 처음 발생한 시기에서의 특성을 보기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성 피해를 경험한 시기는 형사, 민사법에 의거하여 법적으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라고 정한 만13세를 기준으로 만 6세부터 만12세까지는 아동기, 만13세부터 만17세까지는 청소년기, 만18세부터는 성인기로 분류하였다.

성 피해의 시기에서 성별에 따른 발생 빈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chi^2=10.160, p<.05$ ), 남성의 경우 청소년기와 성인

기에서 비슷한 비율의 피해를 경험한 반면 여성은 성인기에서의 피해가 과반수 이상을 넘었다.

<표4> 성 피해를 경험한 시기의 남녀 비율 (N=97)

	남자N(%)	여자N(%)	전체N(%)
만6세부터 만12세까지	2(10)	13(16.9)	15(15.5)
만13세부터 만17세까지	9(45)	12(15.6)	21(21.5)
만18세 이상	9(45)	52(67.5)	61(37)
전체	20(100)	77(77.8)	97(100)

$\chi^2=10.160$ ,  $p<.05$

#### 4)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chi^2=9.714$ ,  $p=.14$ ). 남녀 모두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여 남성은 56.3%, 여성은 43.2%를 나타내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여성의 경우는 남성보다 이성친구에 의한 성 피해가 두드러졌는데(41.9%) 이와 같은 결과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데이트 성폭력의 심각성과 연관 지어 생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5> 가해자와의 관계에 대한 남녀 비율 (N=80)

	남자N(%)	여자N(%)	전체N(%)
가족	1(6.3)	5(6.8)	6(6.7)
아는 사람	9(56.3)	32(43.2)	41(45.5)
낯선사람	3(18.8)	6(8.1)	9(10)
이성친구	3(18.8)	31(41.9)	34(37.8)
전체	16(100)	74(100)	90(100)

$\chi^2=9.714$ ,  $p=.14$

### 3. 성 피해 경험과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 차이 비교

#### 1) 성 피해 집단 과 비피해 집단 간의 정신건강 차이 분석

성 피해 집단과 비피해 집단 간의 정신건강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 를 실시한 결과, 성 피해 집단과 비 피해 집단의 정신건강의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t=1.85, p<.05$ ). 성 피해 집단이 비 피해 집단보다 정신과적인 증상에 대한 9가지 하위요인을 측정하는 정신건강척도의 점수가 높아 정신건강이 더 좋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표6> 성 피해 집단과 비피해 집단의 정신건강 차이 분석

	성 피해(N=97)	비피해(N=366)	t
	평균(표준편차)		
정신건강	54.79(49.09)	45.01(28.27)	1.85*

\*  $p <.05$

## 2) 성 피해 집단에서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의 차이 분석

성 피해 경험 집단에서 남녀가 정신건강수준의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97, p= .33$ ). 이와 같은 결과는 성 피해에 대한 후유증은 남녀의 차이가 없이 정신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표7> 성 피해 집단에서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의 차이 검증

	남자(N=20)	여자(N=77)	t
	평균(표준편차)		
정신건강	45.30(33.40)	57.35(52.42)	-.97

p = .33

### 3) 성 피해 경험집단에서 성 피해 유형에 따른 정신건강의 차이 분석

성 피해 경험 집단의 성 피해 유형에 따른 정신건강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기 위해 성 피해 유형을 포옹이나 키스, 강간 시도, 강간으로 분류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의 정신건강의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F=1.32, p=.27).

<표8> 성 피해 경험 집단의 성 피해 유형에 따른 정신건강의 차이 검증

	포옹/키스 (N=33)	강간시도 (N=47)	강간 (N=16)	F
	평균(표준편차)			
정신건강	71.64(81.09)	54.15(39.07)	47.56(34.30)	1.32

p=.27

#### 4) 성 피해 경험집단에서 성 피해 시기에 따른 정신건강의 차이 분석

성 피해 경험 집단의 성 피해 시기에 따른 정신건강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는지 살펴보았다. 성 피해 시기를 아동기(만6세~만12세), 청소년기(만13세~만17세), 성인기(만18세 이상)로 분류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의 정신건강의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F=.36, p=.70$ ).

<표9>성 피해 경험 집단의 성 피해 시기에 따른 정신건강의 차이 검증

	아동기 (N=16)	청소년기 (N=21)	성인기 (N=59)	F
정신건강	67.94(61.75)	51.90(32.45)	59.20(62.44)	.36

$p=.70$

#### 5) 성 피해 경험집단에서 가해자와의 관계에 따른 정신건강의 차이 분석

성 피해 경험 집단의 가해자와의 관계에 따른 정신건강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는지 살펴보았다. 가해자와의 관계를 가족, 아는 사람, 낯선 사람, 이성친구로 분류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의 정신건강의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F=1.99, p=.12).

<표10>성 피해 경험 집단의 가해자와의 관계에 따른 정신건강의 차이 검증

	가족 (N=7)	아는사람 (N=41)	낯선사람 (N=9)	이성친구 (N=32)	F
	평균(표준편차)				
정신건강	90.57 (79.92)	70.29 (71.43)	47.89 (41.83)	44.62 (27.83)	1.99

p=.12

#### 4. 성 피해 집단에서 성 피해의 특성에 따른 용서 정도의 차이

##### 1) 성 피해 집단에서 성별에 따른 용서 정도의 차이 비교

성 피해 경험 집단에서 남녀가 용서수준의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t=3.15, p<.05). 남성의 용서 점수 평균이 더 높아 남성이 여자에 비해 더 많이 용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11> 성 피해 집단에서 성별에 따른 용서 정도의 차이 검증

	남자(N=20)	여자(N=77)	t
	평균(표준편차)		
용서	139.90(28.45)	116.51(31.89)	3.15

p < .05

## 2) 성 피해 경험집단에서 성 피해 유형에 따른 용서 정도의 차이 분석

성 피해 경험 집단의 성 피해 유형에 따른 용서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 살펴보기 위해 성 피해 유형을 포옹이나 키스, 강간 시도, 강간으로 분류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의 용서의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F=.15, p=.86).

<표12> 성 피해 경험 집단의 성 피해 유형에 따른 용서 정도의 차이 검증

	포옹/키스 (N=31)	강간시도 (N=45)	강간 (N=16)	F
	평균(표준편차)			
용서	121.39(33.80)	122.13(32.02)	116.94(33.89)	.15

p=.86

### 3) 성 피해 경험집단에서 성 피해 시기에 따른 용서 정도의 차이 분석

성 피해 경험 집단의 성 피해 시기에 따른 용서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 살펴보았다. 성 피해 시기를 아동기(만6세~만12세), 청소년기(만13세~만17세), 성인기(만18세 이상)로 분류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의 용서의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F=1.46, p=.24$ ).

<표13>성 피해 경험 집단의 성 피해 시기에 따른 용서정도의 차이 검증

	아동기 (N=13)	청소년기 (N=21)	성인기 (N=58)	F
	평균(표준편차)			
용서	107.15(36.06)	120.71(28.09)	124.17(33.11)	1.46

$p=.24$

### 4) 성 피해 경험집단에서 가해자와의 관계에 따른 용서 정도의 차이 분석

성 피해 경험 집단의 가해자와의 관계에 따른 용서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 살펴보았다. 가해자와의 관계를 가족, 아는 사람, 낯선 사람, 이성친구로 분류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의 용서의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F=.18, p=.91$ ).

<표14>성 피해 경험 집단의 가해자와의 관계에 따른 용서정도의 차이 검증

	가족 (N=7)	아는사람 (N=41)	낯선사람 (N=9)	이성친구 (N=29)	F
	평균(표준편차)				
용서	113.57 (34.55)	119.44 (27.72)	122.22 (44.45)	123.21 (36.90)	.18

$p=.91$

## 5. 성 피해 집단에서 용서와 정신건강과의 관계

성 피해 경험집단의 용서와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용서와 정신건강척도의 9개 하위요인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대인예민성, 적대감, 정신증 요인에서 용서와 정신건강이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용서를 많이 할수록 대인예민성이 낮아지고, 적대감이 줄어들며, 정신증상이 적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15>성 피해 집단에서 용서와 정신건강과의 상관관계

	용서
신체화	-0.170
강박	-0.198
대인예민성	-0.220*
우울	-0.134
불안	-0.173
적대감	-0.240*
공포불안	-0.176
편집사고	-0.170
정신증	-0.217*

\* p < .05

## V. 논의 및 제언

### 1. 결과 논의

본 연구는 전국 약 14개 대학의 학생 463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통해 성 피해 경험에 따라 피해 집단과 비 피해 집단으로 나누어 두 집단의 정신건강의 차이를 알아보았으며 특히 피해 집단에서는 성 피해의 특징을 살펴본 후 가해자를 용서한 것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성별에 따라 용서와 정신건강의 관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해본 결과, 성별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유사한 비율로 표집 되어 남자가 230명(49.7%), 여자가 233명(50.3%) 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체 연구대상자들 463명을 대상으로 성 피해 경험 유무를 알아본 결과, 성 피해를 경험하였다고 답변한 대상자는 97명으로 전체의 21%를 차지하였으며 이 중 남자는 97명 중 20명으로 8.7%가 원치 않는 성 피해를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고 여자는 97명 중 77명으로 33.0%가 성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의 성 피해 비율이 남자의 경우보다 3.8배 높아,

성 피해 경험에서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경우 약 3명 중의 1명은 원치 않은 성경험을 한 적이 있으며, 이것은 대부분의 여성들이 생애동안 적어도 한번 이상의 성 피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는 Kelly(1988)의 연구를 지지하며, 여성의 성 피해 비율이 유의하게 더 높았던 기존의 연구(송진경, 2003)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성 피해 경험 유형에 대한 문항 중 여성의 경우 이성이 포옹이나 키스를 시도하려 했다는 보고가 가장 많았으며, 남성의 경우 이성이 성기를 만지려고 했다는 보고가 가장 많았다. 전체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4-6배 정도 높은 비율을 보였지만 강압에 의해 성관계를 가졌다는 보고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아 여성의 경우 전반적으로 성 피해의 위험에 남성에 비해 많이 노출되어 있지만 비교적 경미한 정도의 성 피해를 더 자주 경험하는 반면 남성의 경우는 성 피해를 경험하는 빈도가 여성에 비해 적지만, 그 정도는 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성 피해를 처음 경험한 나이를 살펴본 결과 남녀 모두 청소년기와 성인기에서의 피해비율이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청소년기에서의 피해가 과반수 이상을 넘어, 청소년기에 성 피해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이는 송진경(2003)의 연구에서 청소년기에 성 피해가 가장 많았다는 결과와도 거의 일치한다.

가해자와의 관계에 대한 문항 중 여성의 경우 이성친구라는 답변이 가장 많아 데이트 성폭력의 심각성을 반영하였다. 남성의 경우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이 선배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군대에서 선임으로부터 성 피해

를 입었다고 보고하였다. 위와 같은 결과는 한국성폭력상담소(2001)에서 실시하였던 성폭력의 실태와 원인에 관한 연구와 일치하며 군대 내에서의 성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이석재(2001) 연구에서도 나타난 결과이다.

셋째, 성 피해 경험 유무와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피해 집단이 비 피해 집단에 비해 정신건강이 유의미하게 해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는 성 피해 대학생들이 정신건강의 9개 하위 증상 차원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송진경(2003)의 연구와 거의 일치하며, 성 피해 경험 대학생들이 신체화, 대인예민성, 우울증, 적대감, 공포불안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장진숙(2007)의 연구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이와 같은 결과로 미루어 보아 성 피해로 인한 심리적인 후유증이 피해자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대인관계와 대학생활 적응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어 성 피해 후유증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이 부각된다.

넷째, 성 피해 집단에서 성 피해의 특성에 따른 용서 정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성이 여성에 비해 유의하게 용서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향성은 남성 중심의 성문화에서 여성보다는 남성 성 피해자들이 자신이 피해자라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직면하기 어려워하여 심리적인 고통을 부정한 결과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성 피해 집단을 대상으로 용서의 정도에 따른 정신건강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용서를 더 많이 할수록 적게 한 피해자에

비해 대인예민성, 적대감, 정신증 측면의 정신건강에 있어서 유의미하게 정신건강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용서가 인지, 정서, 행동을 포괄하는 과정으로서 성 피해자들의 우울, 불안, 분노의 감소 등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Hebl & Enright, 1993; Coyle & Enright, 1997; 김광수, 1999)들과 일치하며, 용서를 함으로 인해 대인관계에서의 불편감과 부적절감을 덜 느끼게 되며, 가해자에 대한 분노를 포함한 전반적인 관계에서의 공격성, 사회적인 고립, 철수와 같은 정신병적인 증상을 적게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 2.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인터넷 강의를 듣는 대학생으로 연구대상을 제한하였기 때문에 모든 연령층에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층을 포함한 보다 많은 대상자들로 연구 결과를 반복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설문 방식에 있어서 인터넷을 통한 자기보고의 방식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연구대상자가 성실히 응답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응답을 하지 않은 대상자들의 특성에 의해 객관적인 정보를 얻는데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질적인 연구 방법을 병행하여 보다 정확한 자료

수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용서와 정신건강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고 용서의 어떤 요인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용서의 요인과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연구하여 더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용서의 효과를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데이트 성폭력이나 군대 내의 성폭력에 대한 특징에 대한 후속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성 피해의 후유증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왔지만, 그 개입 방법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성 피해 경험자의 정신건강에 용서라는 개입 방법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는 것에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용서가 실제 성 피해 경험자들의 대인관계와 분노, 정신병적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 상담이나 심리치료 장면에서 용서 기법의 활용과 용서를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적 접근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 VI. 참고 문헌

- 권희경, 장재홍(2003). 청소년 성 피해자들의 성폭력 인식과 자기손해적 성 행동.
- 권희경(2004). 성 피해 상담 모델들과 상담 성과에 대한 개관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2004, Vol. 16, No. 2, 187-205.
- 김경희, 남선영, 지순주, 권혜진, 정연강(1996). 성폭력 피해 여성의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학회지*. 제 9권, 제 1호.
- 김광수(1999). 용서교육 프로그램 개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수영 (2004). 용서수준과 자기개념에 관한 연구: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규, 김중술(2000). 아동기 성 피해의 심리적 후유증, 성인기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권 4호.
- 박성민(1999). 성 피해의 현황 및 실태와 피해자들의 성행동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숙(1990). 성학대 피해자의 문제와 치료. *정신건강연구*. 제 9집, 26-36.
- 박옥임(2004). 성폭력 상담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9권. 2호.
- 박종효(2003). 용서와 건강의 관련성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2), 301-322.

- 박혜영, 김연옥, 홍강의(1996). 근친강간의 유형과 가족 역동성. 소아 청소년 정신의학, 7(1), 23-33.
- 송진경(2003). 대학생 성 피해자들의 후유증과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영희(1989). 성폭력 실태와 법적 통제. 한국 여성학, 5.
- 안옥희(2000). 친족 성폭력 피해경험.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영희(2004). 대학생들의 부모-자녀 갈등경험, 용서, 정신건강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8(3).59-77.
- 이석재, 최상진(2001).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 15권, 제1호, 97-116.
- 이주용(2004). 성 피해의 심리적 후유증에 관한 질적연구 -성적영역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진숙 (2007). 남녀대학생 성 피해 경험과 성인지 및 정신건강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화수 (2003). 용서교육 프로그램이 실업계 남자 고등학생의 용서, 불안, 분노 및 우울 수준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주현(1997). 국내 성폭력관련 연구의 동향. 한국성폭력 상담소 부설 성폭력 문제 연구소 개소기념 세미나 자료집, 54.
- 한국성폭력상담소(1993). 일그러진 성문화, 새로 보는 성.
- 한국성폭력상담소(2001). 성폭력전문상담 교육자료집.
-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7). 성폭력의 실태와 원인에 관한 연구Ⅱ.

- Anderson, S. C., Bach, C. M., & Griffith, S. (1981). *Psychosocial sequelae in intrafamilial victims of sexual assault and abuse*. Paper presented at the Thi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hild abuse and neglect, Amsterdam, The Netherlands.
- Briere, J., & Conte, J. (1989). *Amnesia in adults molested as children: Testing theories of repression*. Paper presented at the 97th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New Orleans, LA.
- Brownmiller, S. (1975). *Against our will: Men, women and rape*. New York: Simon & Schuster.
- Courtois, C. (1979). *The incest experience and its aftermath*. *Victimology: An International Journal*, 4, 337-347.
- Enright, R. D., & the Human Development Study Group. (1991). *The moral development of forgiveness*. In W. Kurtines & J. Gewirtz (Eds.), *Handbook of moral behavior and development*. Vol 1. 123-152.
- Enright, R. D. & Fitzgibbons, R. P. (2000) *Helping clients forgive: An empirical guide for resolving anger and restoring hope*. Washington, DC, U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Finkelhor, D., & Brown, A. (1986). The traumatic impact of child sexual abuse: A conceptualization.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5, 530-541.

- Freedman, S. R. (1994). *Forgiveness as an educational goal with incest survivors*.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 Gordon, L.(1986) *Incest and resistance*. Patterns of father-daughter incest, 1880-1930. *Social Problem*, 33, 253-257.
- Kelly L. (1987). *Sexual violence as a continuum*. Hanmer and Maynard Edited. *Women, Violence and Social Control*. Londen: Macmillan.
- Robert, A. K., Louis, F. C., & Debra, M. G. (1986). *Characteristics of child sexual abuse treatment programs*. *Child abuse & Neglect*. 10(4). 563-564.
- Tuft's New England Medical Center, Division of Child Psychiatry. (1984). *Sexually exploited children: Service and research project. Report of the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Washington, DC: E. S. Department of Justice.

# Abstract

The relationships among the sexually abused college students, their mental health, and forgiveness for the sexual offenders.

Hyun-Ah Kim

Department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of sexually abused college student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ntal health and sexual abuse, and to investigate how forgiveness would affect the improvement of negative effect of sexual abuse.

The results of the study was as follows:

First, ninety seven students out of the four hundred sixty three participants(21%) were identified to experience some forms of sexual abuses, including twenty male(8.7%), and seventy seven female

students(33%).

Second, the sexually abused people suffered more mental problems than the non-sexual abuse group based on SCL-90.

Third, the sexually abused people who reported forgiveness for the offenders showed better mental health than the non-forgivers. This result would be valuable for the treatment of sexually abused victims because forgiveness of the perpetrators for the treatment of sexually abused victims was avoided.

The limitations and further suggestions based on this study were suggested.

# 부 록

No. \_\_\_\_\_

## 성의식 및 성활동에 관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지는 대학생들의 성의식 및 성활동과 그에 관련된 연구를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귀하의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될 것이며, 귀하의 응답은 중요한 연구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각 문항에는 정답이 따로 없으니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귀하의 상황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솔직한 답변은 연구 자료의 정확한 분석에 큰 도움이 되오니 **가능한 솔직하게** 답해주시고,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주시시오.

본 연구에 도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7년 10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임상심리학 연구실  
지도교수 채 규 만  
석사과정 연구원 김 현 아

※ 본 조사의 결과는 통계법 제 8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한국 남성 및 여성의 성의식 및 성활동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자신의 의견 또는 자신의 경험에 해당되는 곳에 √ 표 해주십시오.

다음은 여러분이 겪으신 “원치 않은 성경험” 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여러분이 경험한 것들에 모두 동그라미 해주십시오.  
 각각의 문항에 대하여 **솔직하고 진지하게** 응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① 예	② 아 니 요
1. 이성(또는 동성)으로부터 강제로 포옹이나 키스를 당했다.		
2. 이성(또는 동성)이 강제로 가슴이나 성기를 만졌다.		
3. 이성(또는 동성)의 성기를 만지게끔 강요받았다.		
4. 이성(또는 동성)이 강제로 질(또는 항문)에 손가락을 넣으려고 하였다.		
5. 이성(또는 동성)이 강제로 질(또는 항문)에 성기를 넣으려고 하였다.		
6. 이성(또는 동성)이 강제로 질(또는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7. 이성(또는 동성)이 강제로 내 입에 성기를 넣거나 나의 성기를 빨았다.		
8. 이성(또는 동성)의 강압에 의해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졌다.		

\* 만일 위의 “원치 않은 성경험” 항목 중에 어느 하나라도 ‘예’ 표시를 하셨다면, 다음 질문(9~13번)에 답하여 주십시오.

9. 위에서 ‘예’ 라고 대답한 문항 중에서 정신적으로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되는 문항을 모두 골라 동그라미 하거나, 괄호 안에 써주십시오. ( )번 문항

1      2      3      4      5      6      7      8

10. 그 중에서 정신적으로 가장 오랫동안 상처가 되었던 것은 어느 문항입니까?  
 ( )번 문항

11. 위의 그 성 피해를 처음 경험한 것이 몇 살 때였습니까? 만 ( )세

12. 위의 경험을 갖게 한 상대는 누구였습니까?

- ① 친부 ② 계부 ③ 형제 ④ 친척 ⑤ 선생님 ⑥ 동네 사람 ⑦ 아는 사람 ⑧ 낯선 사람 ⑨ 직장 상사 ⑩ 직장 동료 ⑪ 이성 친구 ⑫ 동성 친구 ⑬ 선배 ⑭ 폭력배 ⑮ 기타( )

13. 몇 명의 가해자에게 몇 차례에 걸쳐 피해를 입었습니까?

- ① 한 명에게 한 번 ② 한 명에게 여러 번 ③ 여러 명에게 한 번 ④ 여러 명에게 여러 번

**다음은 경험하였던 상처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아래의 질문에 대해 빈칸을 채우거나 가장 적절한 곳에 √ 표 해주세요.**

당신에게 부당하고 깊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잠시 동안 그 때 있었던 일과 서로에게 어떻게 행동했었는지 기억하여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상대방을 그려보도록 노력해보시고 그 당시 일어났던 일을 느껴 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1.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간략히 기록해 보십시오.

2. 그 일은 언제 있었습니까? (경과된 날을 가급적 자세히 기록해 보십시오)

( )일 전, ( )주 전, ( )달 전, ( )년 전

3.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동그라미 하십시오)

부모/ 형제/ 친척/ 선생님/ 동성친구/ 이성친구/ 선배/ 후배/ 기타( )

♠ √ 표 하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정말 그렇다
4. 그 일이 생겼을 때 상처를 심하게 받았습니까?	1	2	3	4
5. 문제(갈등)가 일어나기 전 그 사람과 가까웠습니까?	1	2	3	4
6. 그 문제(갈등)는 여러분에게 심각한 문제였습니까?	1	2	3	4
7. 자신이 그러한 상처를 받을 만 하다고 생각합니까?	1	2	3	4
8. 그 문제로 얼마나 오랫동안 고민하거나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 기간을 대략 쓰십시오)				
(            )일 , (            )주 , (            )달 , (            )년				

다음 장부터는 당신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에 대해 당신이 현재 갖고 있는 태도에 대한 다음의 질문들에 대해 답해보십시오.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태도를 솔직하게 표시해 보십시오.

아래의 문항들은 지금 현재 이 순간에 그 사람에 대해 갖고 있는 느낌이나 감정에 관한 것입니다. 각 문항에서 그 사람에 대한 당신의 실제적인 느낌을 평가해 보십시오. 각 문항에 대해 당신의 현재의 느낌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곳에 √ 표 하십시오. 한 문항도 빼지 말고 다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정말 그렇다
1. 나는 그/그녀를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하다.	1	2	3	4
2. 나는 그/그녀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느낀다.	1	2	3	4

3. 나는 그/그녀에게 친절하게 해주고 싶다.	1	2	3	4
4. 나는 그/그녀를 생각하면 기쁘다.	1	2	3	4
5. 나는 그/그녀에게 적대감을 느낀다.	1	2	3	4
6. 나는 그/그녀에게 긍정적 감정을 느낀다.	1	2	3	4
7. 나는 그/그녀에 대해 온화하게 느낀다.	1	2	3	4
8. 나는 그/그녀에게 미움을 느낀다.	1	2	3	4
9. 나는 그/그녀에게 반감을 느낀다.	1	2	3	4
10. 나는 그/그녀에게 분노를 느낀다.	1	2	3	4
11. 나는 그/그녀를 좋게 느낀다.	1	2	3	4
12. 나는 그/그녀를 생각하면 화가 난다.	1	2	3	4
13. 그/그녀에 대한 나의 마음은 쌀쌀하다.	1	2	3	4
14. 나는 그/그녀가 싫다.	1	2	3	4
15. 나는 그/그녀가 돌봐주고 싶다.	1	2	3	4
16. 그/그녀를 생각하면 마음이 쓰라린다.	1	2	3	4
17. 나는 그/그녀가 좋다.	1	2	3	4
18. 나는 그/그녀에게 애착이 간다.	1	2	3	4
19. 나는 그/그녀가 친근하게 느껴진다.	1	2	3	4
20. 나는 그/그녀가 역겹다.	1	2	3	4

아래의 문항들은 그 사람에게 대한 당신의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응답하면서 당신이 그 사람에게 대해 어떻게 행동하거나 행동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현재 행동이나 행동 가능한 행동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곳에 √ 표하십시오. 한문항도 빠지 말고 다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정말 그렇다
21. 나는 그/그녀에게 우정을 보인다.	1	2	3	4
22. 나는 그/그녀를 피한다.	1	2	3	4
23. 나는 그/그녀를 무시한다.	1	2	3	4
24. 나는 그/그녀에게 소홀히 대한다.	1	2	3	4
25. 나는 그/그녀를 돕는다.	1	2	3	4
26. 나는 그/그녀를 깎아내린다.	1	2	3	4
27. 나는 그/그녀에게 친절하게 대한다.	1	2	3	4
28. 나는 그/그녀에게 사려깊게 대한다.	1	2	3	4
29. 나는 그/그녀를 험담한다.	1	2	3	4
30. 나는 그/그녀에게 먼저 다가간다.	1	2	3	4
31. 나는 그/그녀를 신경쓰지 않는다.	1	2	3	4
32. 나는 그/그녀를 도와준다.	1	2	3	4
33. 나는 그/그녀와 말(대화)하지 않는다.	1	2	3	4

34. 나는 그/그녀에게 부정적으로 행동한다.	1	2	3	4
35. 나는 그/그녀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1	2	3	4
36. 나는 그/그녀와 떨어져 있다.	1	2	3	4
37. 나는 그/그녀에게 호의를 보인다.	1	2	3	4
38. 나는 그/그녀가 어려울 때 도움을 준다.	1	2	3	4
39. 나는 그/그녀와 얘기할 때 툭툭 쏘아준다.	1	2	3	4
40. 나는 그/그녀와 함께 즐거운 자리를 같이 한다.	1	2	3	4

아래의 문항들은 현재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 특별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금 현재 당신의 머리를 사로잡고 있는 생각들을 살펴보십시오. 각 문항에 대해 **당신의 현재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곳에 √ 표 하십시오. **한문항도 빼지 말고** 다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정말 그렇다
41. 나는 그/그녀가 비열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42. 나는 그/그녀가 사악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43. 나는 그/그녀가 끔찍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44. 나는 그/그녀가 좋은 자질이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45. 나는 그/그녀 존중(존경) 받을만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46. 나는 그/그녀가 소름끼친다고 생각한다.	1	2	3	4
47. 나는 그/그녀가 사랑스럽다고 생각한다.	1	2	3	4
48. 나는 그/그녀가 가치 없다고 생각한다.	1	2	3	4
49. 나는 그/그녀가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0. 나는 그/그녀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1. 나는 그/그녀가 멋지다고 생각한다.	1	2	3	4
52. 나는 그/그녀가 부패(타락)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3. 나는 그/그녀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4. 나는 그/그녀가 잘되기를 바란다.	1	2	3	4
55. 나는 그/그녀를 인정하지 않는다.	1	2	3	4
56. 나는 그/그녀를 좋게 생각한다.	1	2	3	4
57. 나는 그/그녀가 건강하기를 바란다.	1	2	3	4
58. 나는 그/그녀를 비난한다.	1	2	3	4
59. 나는 그/그녀가 성공하기를 바란다.	1	2	3	4
60. 나는 그/그녀가 행복을 찾기를 바란다.	1	2	3	4

이제까지 응답한 그 사건과 그 사람에 대해 다시 돌아보면서 다음의 마지막 문항들에 대해서 응답해 보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정말 그렇다
61. 지금 그 일에 대해 생각해보니 사실 아무 문제도 아니었다.	1	2	3	4
62. 그 일로 나는 전혀 괴로움을 당하지 않았다.	1	2	3	4
63. 그/그녀가 내게 한 행동에는 잘못된 것이 없다.	1	2	3	4
64. 내 감정은 전혀 상하지 않았다.	1	2	3	4
65. 그 사람이 한 일은 공정한 것이었다.	1	2	3	4
66. 나는 그/그녀를 용서했다.	1	2	3	4

다음은 우리가 때때로 경험하는 문제들을 모아 놓은 것입니다. 귀하께서 **다음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 했는지** 평가해 주십시오. 아래의 다섯가지 대담 중 귀하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대담을 **하나만** 골라서 빈칸에 √ 표를 해주십시오.

질 문	전혀 없다 ①	약간 있다 ②	웬만 큼 있다 ③	꽤 심하 다 ④	아주 심하 다 ⑤
1. 외롭다.					
2. 머리가 아프다.					
3. 넓은 장소나 거리에 나가기가 두렵다.					

4.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 못마땅하다.					
5. 신경이 예민하고 마음이 불안하다.					

6. 우울하다.					
7. 신경통 또는 근육통이 온다.					
8. 이성을 대하면 부자연스럽고 부끄럽다.					
9. 사람들이 나를 욕하는 것 같다.					
10. 자꾸 쓸데없는 생각을 한다.					

11.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난다.					
12. 마음 속이 텅 빈 것 같다.					
13. 몸의 일부가 저린다.					
14. 혼자서 집을 나서기가 두렵다.					
15. 나의 생각을 남이 아는 것 같다.					

16. 걱정이 많다.					
17. 울화가 치밀어 견잡을 수가 없다.					
18.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한다.					
19. 목에 무엇이 걸린 것 같다.					
20. 공연히 불안하다.					

질 문	전혀 없다 ①	약간 있다 ②	웬만 큼 있다 ③	꽤 심하 다 ④	아주 심하 다 ⑤
21. 나를 이해 못하는 사람이 많다.					
22. 정확하게 일을 하느라고 일을 끝마치지 못한다.					
23. 기분이 쉽게 변한다.					
24. 함께 있어도 고독을 느낀다.					
25. 몸의 어느 부위가 힘이 든다.					

26. 겁나는 물건이나 장소 혹은 대상이 있다.					
27.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거나 불친절하게 대한다.					
28. 일을 할 땐 몇 번씩 해야 마음이 놓인다.					
29. 남을 때리거나 해치고 싶을 때가 있다.					
30. 허무감을 느낀다.					

31. 팔다리가 목직하다.					
32. 누가 나를 쳐다보거나 나의 이야기를 하면 거북하다.					
33. 사람들이 나를 감시하거나 나에 대해 수군대는 것 같다.					
34. 과감성이 모자란다.					
35. 때려 부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36. 친숙한 것을 보아도 낯설거나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인다.					
37. 내 몸 어딘가가 병든 것 같다.					
38.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가기가 두렵다.					

39. 내가 잘한 것을 인정받지 못한다.					
40. 긴장이 된다.					

41. 남과 싸운다.					
42. 소외감을 느낀다.					
43. 가슴이 마구 뒹다.					
44. 사람이 많은 곳에서 먹고 마시기가 거북하다.					
45.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려고 한다.					

46. 옆에 누가 있으면 나의 언행에 신경이 쓰인다.					
47. 물건을 던지거나 고함을 지른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다음의 사항에 대해 대답해 주십시오.  
 언급하였듯이 **모든 정보는 절대 비밀**이 보장되오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성별      ①남      ②여
2. 나이      만 (      )세
3. 결혼여부    ① 미혼    ②동거    ③결혼    ④이혼    ⑤기타(      )

♥지금까지 설문에 성실히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감사의 글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었을 때도 있었지만, 중간에 주저앉지 않고 부끄럽지만 작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께 작으나마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먼저, 채규만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따뜻하게 격려해주시고 제가 나태해질 땐 따끔하게 한 마디 해주시던 교수님~ 교수님의 자상하고 따뜻한 모습과 연구실에 놀러 가면 타주시던 향긋한 커피향이 그리워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인자한 모습으로 조용히 지켜봐 주시고 지지해주신 이옥경 교수님, 제가 미처 보지 못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지도해주신 김명선 교수님께도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같이 논문을 쓰지 못해 아쉬웠지만 학교를 떠나서도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해준 사랑하는 동기들~ 현주, 유경, 현욱, 주희, 묘정, 진영, 린아, 선화 언니, 그리고 성훈오빠, 윤희(너에게는 특별한 의미로 더욱) 고마워요. 함께 논문 쓰느라 많이 고생한 22기 언니들도 고마워요. 그리고 힘든 과정을 함께 하면서 힘이 되어 준 영숙 언니 고마워요. 논문뿐만 아니라 힘든 일이 있을 때 상담도 해주고 같이 스터디도 하면서 내게 큰 위로가 되어줬던 정말정말 고마운 윤미 언니, 고마워~(우리 정말 장하다! 헤헤^-^)

논문 쓰는 동안 여러 가지로 신경 써 주시고 배려해주신 강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선생님들~ 강성희 팀장님, 송은일 팀장님, 정혜은, 도현주, 이주민, 손윤희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늘 항상 함께 하지 못하고 챙겨주지 못해서 많이 미안했던 내 소중한 LD동생들, 이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느라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늘 보고픈 경희언니, 용희언니, 효영이(효영아 미국 잘 다녀와~ㅠ\_ㅠ), 자영이. 우울할 때도 함께 있으면 웃음이 나는 소중한 친구들 안정(필리핀 가지마), 윤전. 다들 정말정말정말 고마워.

그리고 사랑하는 엄마, 아빠, 할머니~, 내가 힘들어 할 때도 믿고 기다려주고 지지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또, 군대에 있는 우리 오빠~ 군대에서도 전화로 응원도 많이 해주고 정말 고마워^-^

마지막으로,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줬던 소중한 사람 '니이'에게도 깊은 고마움을 전합니다.